

# 광주 '女力士' 김형희 3관왕 들었다

(52kg이하 파워리프트)

양궁 김란숙·육상 김하은 2관왕 영예

광주 금메달 14개…종합 3위 향해 순항

'올림픽 사격 금' 이윤리 전남에 첫 금



광주가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틀째인 7일 금메달 14개를 채우며 종합순위 3위를 위한 순항을 했고, 전남도 기대하던 첫금을 따내는 등 선전했다.

김형희는 이날 조선대 체육관에서 열린 역도 여자 52kg이하에서 파워리프트 개인종합 3관왕에 올랐다.

2008 베이징장애인 올림픽 양궁 단체전 은메달에 빛나는 김란숙은 양궁 여자 리커브 60m, 70m에서 한 수 높은 기량을 뽐내며 2관왕에 올랐다.

우성은 수영 남자50m 배영에서 44초42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빛역영을 뿐쳤고, 조장문은 수영 여자 50m 배영에서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하은은 육상 200mT12에서 금빛질주를 펼쳐 6일 100m(T12) 금메달에 이어 2관왕에 올랐으며 신석섭·현병일과 김동일·장병수는 각각 볼링 TPB9와 TPB3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김홍규는 양궁 남자 리커브 90m에서 금과상을 명중시켰으며 최미진은 육상 여자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경숙·채영식은 몬볼 여자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경대는 육상 남자 1천500m(T12)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노승현, 이동현은 각각 수영 남자자유형 50m(D3)과 자유형50m(S14)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문경환은 유파 66kg이하(DB)에서 역시 은메달을 메웠다.

전남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첫 금총상을 올린 이윤리(여)가 전북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여자50m소총 3자세 개인전R8 SH1에서 기대대로 금메달을 명중시켰다.

박수정(덕수학교)은 육상 여자 1천500m T20에서 6분 21초 52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빛질주를 펼쳤고, 김삼순도 수영 여자 5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광배는 수영 남자 50m자유형에서 은메달을 따냈고, 민진호·임정준도 볼링 TPB9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 정경연과 임영화는 각각 수영 남자 50m접영과 여자50m 자유형에서 동메달을 따냈으며 김현우·안수성도 볼링(뇌성마비)TPB7에서 역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대표 심우기 선수가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 필드 투원반에 출전, 힘차게 원반을 던지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kwangju.co.kr

## "올림픽 출전이 꿈"

■ 오늘의 히어로

女 역도 3관왕 김형희



"기회가 된다면 태극마크를 달고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습니다."

7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도 여자 60kg이하에서 3관왕에 오른 김형희(여·36·시진)는 지난해 못 땀 금메달을 획득해 너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인이었던 김형희는 스물 다섯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원발을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실의에 빠져 지냈다.

그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지난 2004년. 장애인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 그녀는 장애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주변의 권유로 지난 2007년 역도에 입문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해 장애인체전에 출전해 60kg에서 은메달 3개를 따냈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된 그녀는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며 금메달에 대한 꿈을 키웠고 올해 보람듯이 금메달 3개를 따내 지난해 한풀이를 했다.

김형희의 꿈은 조동학교 4학년에 다니는 딸을 위해서 태극마크를 달고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해 자랑스런 엄마가 되는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선수들 모두 힘내라 힘"

국제라이온스클럽 355-B1지구

결연 맺은 시·도 선수 찾아 응원

"광주 김형희 파이팅! 전남 김금희 파이팅!"

7일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에는 김재담(54) 금남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비롯한 광주중앙클럽등 회원들이 빨간 막대 풍선을 동원해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일을 접고 체전기간동안 경기가 열리는 시간부터 끝날때까지 응원을 한다.

또 각 시·도 선수단을 방문, 격려금과 물품을 제공해 광주의 훈훈한 인심을 알리고 있다.

김재담 회장은 "이번체전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더욱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남 전국체전 D-2

- 광주·전남체육회 사무처장 출사표

### "광주체육 위상 살리도록 최선"

광주시 전학철 처장



"녹색의 땅, 의로운 땅 전남에서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을 축하하면서 광주는 종합득점 3만점이상을 획득, 13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선수단 총감독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광주체육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매 경기 열정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처장은 "특히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이 역대 가장 성공적

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처장은 "체전 기간 동안 선수들이 건강하게 최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해 광주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불협화음 없는 클린체전 치를 터"

전남도 서정복 처장



"31년만에 열리는 전남체전에서 종합 3위를 달성, 전남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훈훈하고 따뜻한 인심을 선수단에 전하겠습니다."

전남선수단 총감독 서정복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겨울 동계훈련을 통해 신체력과 강민한 체력을 다져왔고,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선수단이 분발할 것으로 기대해 종합3위 달성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특히 이번 전남체전을 통해 타 시·도 선수단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전남의

전'으로 치러지는 만큼 경기력 면에서도 선의의 경쟁 속에 단 한건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클린체전'으로 치르겠다"며 "전남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 무한한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늘 오후 6시 롯데 VS 삼성 준PO 1차전



롯데 선발 송승준

삼성 선발 배영수



## "우리가 먼저 1승"



'포크볼리' 송승준(28·롯데)과 사자군단 에이스 배영수(27·삼성)가 8일 오후 6시 사직구장에서 벌어지는 2008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팀의 명운을 걸고 선발로 나선다.

제리 로이스터 롯데 감독과 선동열 삼성 감독은 7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송승준과 배영수를 1차전 선발로 예고했다. 1989년부터 시작돼 17차례 치러진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예외 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것에 비춰볼 때 두 선수의 어깨가 무겁다.

손민한, 장원준과 함께 롯데 선발진의 삼각 편대를 이룬 '해외파' 송승준은 국내 무대 2년째인 올해 12승7패, 평균자책점 3.76을 거둬 팀의 주축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140km/h 후반의 빠른 직구와 험플레이트 앞에서 낮게 떨어지는 포크볼을 앞세워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더욱이 송승준은 올해 삼성을 상대로 팀 내 투수 중 가장 좋은 3승1패, 평균자책점 3.22를 기록해 8년 만에 가을 잔치에 참가한 팀에 첫 승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승준은 홈구장 사직구장에서 올해 3승3패, 평균자책점 3.55를, 배영수는 8월30일 사직구장에서 딱 한 번 등판해 3과 3분의 1이닝 동안 4점을 주고 패전투수가 됐다./연합뉴스